

구호위원회 주일

헌금 전 이야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주일

헌금 전 이야기

가능하면 연합감리교회의 자원봉사선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나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경험한 것을 간증하도록 하십시오. 간증하는 이들이 구호위원회가 어떻게 그들의 사역을 도왔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이 재난을 당했을 때 구호위원회가 대응했던 적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반드시 강조해 주십시오. 본 헌금 전 이야기는 독립적 이야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함께 제공된 구호위원회 주일 설교 및 예배 자료, “풍성한 은혜”와 연결되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실천해 왔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지역 내에 이미 존재하는 강점을 바탕으로 일하며, 재난을 당한 이들을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킵니다. 구호위원회의 이러한 사역은 8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재난 지역 내에 거주하는 훈련 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현지 상인들로부터 비상용품과 음식을 구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내 기존 협력사들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의 필요사항들이 뉴스 보도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재건을 위해 지속해서 투자하면서 독창적인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난 복구는 개인과 지역 사회 모두에게 긴 과정입니다. 구호위원회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기반시설(infrastructure) 문제, 기후 변화, 및 환경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수는 적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호위원회의 직원들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이들은 재난 대응과 복구에 특화된 전문가들입니다. 드려진 헌금은 또한 긴급 대응 담당자, 건설 자원봉사자, 그리고 사례 관리자의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들은 재난 피해자들을 돕고, 전기톱

작업자 팀 및 석고보드 벽면 설치 팀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회들의 헌금 덕분에, 구호위원회는 일상적인 운영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하는 즉시 풍성한 은혜와 전문적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푸에르토리코나 바하마를 강타한 허리케인이든지, 필리핀에 발생한 지진이든지, 캘리포니아의 산불, 혹은 짐바브웨의 사이클론 피해를 돕는 것은 물론, 우리를 대신하여 깨끗한 물이 없는 지역들과 전쟁이나 기근으로 방치된 이들과 함께 일하고 가장 연약한 이들과 함께 걷습니다. 구호위원회에 보내는 여러분의 후원은 풍성한 은혜의 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9:3-4에서 다른 이들의 필요에 응답함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요 9:4a). 하나님께서는 구호위원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확장하는 위대한 일을 계속하길 원하십니다. 이 일에 넓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